

호종단과 행기수

제주의 수맥을 끊고 다녔다는 호종단을 지혜롭게 피한 이야기는 여러 마을의 물에 전해온다. 그 중 한 곳이 거스름새미와 노단새미이다. 이런 전설들에는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물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토산중양로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41-9 ~ 표선면 토산리 2027(약 5.8km)

토산망동로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383-1 ~ 표선면 토산리 926-15(약 2.9km)

세화로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22-1 ~ 표선면 세화리 1999-1(약 4km)

돈오름로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122-1 ~ 표선면 표선리 2042-2(약 2.2km)

가마병풍로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58-7 ~ 표선면 세화리 254-16(약 0.5km)

가마행남로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24-4 ~ 표선면 세화리 250-23(약 0.6km)

세화강왓로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06-3 ~ 표선면 세화리 1327-1(약 1.1km)

토산중앙로 / 토산망동로 | 토산리 거센새미



망오름

토산중앙로는 토산리의 중심을 지나는 도로로 바다와 접한 일주동로에서 시작해 토산봉을 지나 중산간의 원님로까지 이어진다. 토산리는 고려시대 속현의 하나로 유서 깊은 마을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토산봉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지형이 토끼와 비슷하다 하여 '토산(兎山)'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토산망동로는 토산봉의 다른 이름인 망오름의 동쪽을 지나는 도로라 하여 부여된 이름이다. 오름의 앞쪽은 '망앞' 뒤쪽은 '망뒤'라고 불린다. 오름의 형태가 토끼처럼 생겼다고 토산봉이라 했고, 또 두개의 봉우리 중에 서쪽 봉우리에 조선시대 설치한 봉수대가 있어 속칭 망오름이라 했다. 토산봉은 소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고 오름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옷토산마을, 아래쪽에는 알토산 마을이라고 한다.

토산봉의 서쪽에는 거센새미와 노단새미라고 불리는 용천수가 있다. 거센새미는 일반적으로 바다 쪽으로 흐르는 제주의 다른 하천들과 달리 한라산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 그래서 물이 거슬러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 토산리 마을을 비롯하여 주변 마을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노단새미는 토산리에 있는 영천사 앞 언덕 밑에서 솟아나는 샘이다. '노단'은 바른 쪽을 뜻하는 제주어인데 바른 방향으로 흘러내린다는 의미이다. 거센새미와 노단새미는 지장샘과 유사한 호종단의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중국의 황제가 풍수를 살피던 중에 제주에서 천하를 다스릴 큰 인물이 날 기운이 있음을 발견했다. 황제는 호종단을 제주에 보내 제주의 지맥과 수맥을 모두 끊어버리라고 했다. 제주에 도착한 호종단은 제주도 동쪽 종달리로 들어와 제주 전역을 돌며 수맥과 지맥을 끊어나갔다. 호종단이 토산리 마을에 도착할 무렵이었다. 한 농부가 '너븐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아가씨로 변한 수신이 급히 달려오더니 행기(눅그릇)에 물을 떠서 구부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농부가 그 말대로 물을 떠서 놓으니 잠시 후 호종단이 수맥이 표시된 책을 들고 나타나 혹시 근처에 구부러진 나무 아래에 샘물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호종단의 책에는 이미 수신이 이곳으로 와서 숨을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농부가 그런 물은 알지 못한다고 하자 호종단은 분명히 이곳인데 없는 걸보니 책

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마을을 떠났다. 농부의 기지 덕분에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는 물이 끓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세화로/돈오름로 | 세화리

세화로는 세화리의 1, 2, 3리를 지나는 길이다. 표선면 중앙에서 남쪽에 위치한다. 중산간에서 해안지대로 길게 넓게 펼쳐진 채 평지로 이뤄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옛 이름은 ‘가는꽃’이다. 이는 ‘가늘다’의 뜻으로 ‘가늘게 형성된 숲’이라는 의미이다.

돈오름로는 세화1리의 옛 지명을 반영하여 부여된 이름이다. 세화1리의 옛 이름은 ‘돈내오름’, ‘도노름’이라고 불렸다. 세화리에서 시작된 돈오름로는 일주동로를 사이에 두고 표선관정로로 이어진다. ‘돈오름’은 세화1리의 옛 이름으로만 알려졌을 뿐 어느 오름을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마을의 설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약 500년 전 당시 허익 별감이 정의현 지역을 순시하던 중에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나 앞발로 땅을 긁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허별감이 지관에게 그곳의 지맥을 살펴보게 하니 이 지역은 마치 자라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자손이 번창하고, 지맥이 살아 창창 흐르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했다. 허별감은 즉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이끌고 그곳에 가 터를 잡았고, 이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훗날 세화1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가마병풍로/가마행남로 | 팽풍물과 행기수

가마병풍로는 팽풍물이 있던 곳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세화2리의 옛 이름은 가마리라고 불렸다. 포구의 머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갯머리였던 것이 변형된 이름이라고 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세화2리이지만 사람들은 가마리라는 이름도 자주 사용을 한다. 세화2리에 있는 팽풍물은 이 샘 주변을 에워싼 절벽이 병풍 모양을 하고 있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물은 말이 소가 목을 축이기도 했고, 주민들의 목욕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가마병풍로에서 일주동로를 사이에 두고 해안가로 나 있는 **가마행남로**는 행기수라 불리



세화2리 해안

는 하천을 지나는 길이다. 행기는 늦그릇을 말하는데 가마리 행기수의 모양이 밥사발처럼 생기고 항상 물이 고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물이 나는 곳이 없던 마을에서 행기수는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꼭 필요한 물이었다. 이 물은 두 군데로 나눠 동쪽은 마시는 물로, 서쪽은 소나 말이 먹는 물로 구분하여 관리했다고 한다. 마을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행기수 다리에서 도깨비불이 자주 나타났었다고 한다. 어두운 밤에 포구에서 행기수 다리를 지나갈 때 물이 고인 곳에서 훗날만 한 불이 나타났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한다.

세화강왓로 | 세화3리



세화3리

세화3리 마을을 지나는 도로는 **세화강왓로**이다. **세화강왓로**는 세화3리 사무소를 지나는 세화로에서 시작하여 세화와 성읍을 잇는 세성로와 만나는 도로이다. 이 길은 세화3리의 옛 이름을 '강왓디'를 반영한 이름이다. 강왓디는 세화리 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가시천 중류 일대에 형성된 받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옛날 군위 오씨가 이곳으로 처음에 이주해서 강화동(江花洞)이라 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면서 강왓디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4·3사건 때는 폐동이 되기도 했고, 이후 강하동, 대홍동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행정구역 상

세화3리로 분리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